

“관광 활성화” vs “학습권 보장”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

학교 주변 호텔 허용 놓고 여야 팽팽한 공방

국회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나흘째 일정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어르신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과 학교 주변 호텔 허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학교 주변 호텔 허용 문제는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라는 총론을 놓고 격돌한 데 이어 이날은 각론을 놓고 ‘학습권 보장’과 ‘관광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충돌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학교주변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업 증진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

박혜자 “특권층 위한 ‘착한 규제’ 폐기” 비난

롯한 야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착한 규제’마저 없애려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정화위원회의 부결로 호텔을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서울에만 7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된다면 호텔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약 2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호텔 건립을 허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박

근혜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을 한답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나쁜 규제’라고 말한다면 대체 어떤 규제가 남아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주 의원도 “현재 학교정화구역 바깥에 들어서는 유희시설만으로도 교육환경에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교육부만이라도 학교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8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히고 있다.

장휘국 “광주 혁신교육 완성”

교육감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8일 교육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출마회견을 열어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무산돼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광주 혁신교육을 멈출 수 없어 시민들께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쟁특권 교육이 고착화하는 등 우리 교육은 여전히 위기다”며 “반드시 교육 공공성 파괴를 막고 정의로운 민주시대를 키우는 광주다운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강고한 기득권과 묵은 때를 벗겨내는 힘난한 시간이었다”면서 “광주의 교육현장

에 청렴과 복지, 민주와 인권,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뿌리내리는 등 큰 물결기를 바꿔왔다”고 자평했다. **광약으로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 ▲정렬한 교직원과 정립을 제시했다.**

장 교육감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로지 정적대안으로 광주교육의 회망을 제시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며 “시민과 함께 걷고 뛰며 교육현장에 서 있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향후 전교조 출신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장 교육감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광주시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의원 배지 한글로 ‘國’→‘국회’로 바뀐다

국회의원 배지가 한글(사진)로 새롭게 바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기과 배지 등에 있는 상징 문양 한자 ‘國’ 도안을 한글 고딕체 가로쓰기인 ‘국회’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즉시 본격적인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배지는 물론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종 회의장의 국회의마크와 차량 휘장 등도 한글 문양으로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 상징 문양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견해와, 배지 속 한자가 ‘或’(혹)자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도 법안 통과 후 “한글로 바꾸는 게 간단 한 문제 같지만 국회에서 평강이 오랜 기간 논의했다”면서 “배지만 바뀌 단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주승용 “동교동계 인사들 지원 받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옥두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전남 곳곳을 돌며 주 의원을 공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창근·김강립 전 의원 등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란 명분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균형발전의 의무를 무시한 처사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균형발전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김만근 “봉선·무등시장 업종 특화구역 조성”

김만근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상업구역과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35년 역사를 간직한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은 주택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건어물·각종 반찬류·족발·튀김 음식 등이 특화된 곳이라서 업종별 특화상업구역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적지”라고 강조했다.



손재홍,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광주 동구청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던 3선의 손재홍 광주시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동안 광주와 동구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했고, 솔한 정치적 사려 속에서도 올곧은 신념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이제 개인의 욕심에 연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배병채 “곡성 농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배병채 곡성군수 예비후보(전남도 의원)는 8일 “농축임산물 가공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득 증대와 살기좋은 곡성농촌 만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는 어르신 다용도 복지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운동장을 건설해 도단위 이상의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담양군수 출마 선언

김영기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8일 담양읍 천변길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담양군수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담양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 행정 전문가 보다 담양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는 경제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30년 건설인과 전문경영인으로 살아온 자신만이 담양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홍인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8일 광주시의원(북구 제4선거구) 재선 도전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관광과 의례라는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감 정치”를 모토로, 북구가! 광구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복지가 따뜻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상운 “서진병원 합리적 이용방안 찾아야”

범상운 광주시의원(남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8일 “광주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표적 흉물인 서진병원(남구 주월동 소재)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해 광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인 범 예비후보는 “1983년 건축허가 후 약30년간 방치되고 있는 서진병원에 대해서 광주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중순 “수완지구에 사립고등학교 유치”

채중순 광주시의원(광산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8일 “수완지구 내 명문 사립고등학교 유치는 수완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수완지구를 교육의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채 예비후보는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유출을 막고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광주시의원 출마선언

전진숙 전 북구의회 의원은 8일 광주 북구 일곡 근린공원에서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치구의 예산 한계와 정책을 개발·실행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시의원으로서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국성·담양=김계중·정재근 기자 kjkim@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원(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병동참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올리세요

단비플라워

축하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